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어머니 양육방식간의 관계

-한국 울산시와 중국 소주시를 중심으로-

서 안 리 정 영 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한국 울산시와 중국 소주시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 568명(한국 295명; 중국 273명)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방식과 아동의 사회성을 평정하여,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사회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중국 어머니는 한국 어머니보다 아동을 더 합리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일관성있게 양육하면서, 동시에 더 권위적으로 통제하며, 아동에게 성취를 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적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국적에 관계없이 어머니들은 다자녀 아동보다 한 자녀 아동을 더 애정적으로 대하며, 아동이 하는 놀이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들은 국적과 자녀수에 관계없이 여아보다 남아를 더 과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어머니는 다자녀 아동보다 한 자녀 아동을 더 과보호하는 반면, 중국 어머니는 한 자녀 아동과 다자녀 아동을 비슷하게 과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성 평정에서는, 중국 어머니가 한국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자기중심성이 더 높고, 동시에 남을 도와주는 협동성도 더 높은 것으로 평정하였다.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어머니 양육방식간의 관계에서는 국적과 외동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상관양상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한 자녀 가정 아동, 다자녀 가정 아동, 한국, 중국, 어머니 양육방식, 사회성

오늘날 여성의 사회진출, 결혼연령의 상승,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한 자녀를 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한국 여성이 낳는 아이의 수가 평균 6.8명이었던 것이, 1980년대에는 2.8명, 그리고 2008년에는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정영숙, E-mail: yschong@pusan.ac.kr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통계청, 2008). 같은 동양 문화권에 있는 중국은 이미 1973년부터 정부에 의해 '計劃生育'이라는 인구제한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후 35년 동안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가정에서 자녀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소수민족 지역과 농촌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국 도시 가정에서 한 자녀만을 키우고 있다. 2008년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1.5명으로, 중국 전체로 볼 때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수가 1억명으로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다(중국통계청, 2008). 자녀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에는 개인적인 것도 있고 국가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 볼 때 한국과 중국 모두 한 자녀를 둔 가정의 수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동아(only child)란 형제·자매가 없이 자녀가 한 명만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으로 (한국어사전편찬회, 1976), 본 연구에서는 외동아와 한 자녀 가정 아동을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출생순위나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가 두 사람 이상인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을 다자녀 가정 아동 또는 형제아(sibling child)로 명명하였다.

한 자녀 가정 아동에 관한 연구들은 형제·자매가 없고 부모와 주로 상호작용하는 외동아들이 보일 수 있는 심리적 특성에 관심을 둔다. 한 자녀 가정 아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외동아의 사회적 능력이나 사회정서발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김덕희, 2005; 김병태, 1997; 김숙경, 1989; 도미향, 윤지영, 2004; 류향자, 1999; 박현주, 1992; 서희정, 1995; 송성옥, 1998; 조성호, 1998; Falbo & Polit, 1987; Jiao & Ji, 1986), 대체로 형제·자매가 없는 것이 한 자녀 가정 아동들의 사회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형제·자매는 개인 발달에 필요한 결정적인 학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기술, 자율성,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부재는 발달상의 많은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명홍, 1987; Falbo & Polit, 1986; Minuchin, 1974). 또한 형제·자매는 놀이나 공부 친구, 교사와 학습자, 보호자와 의존자, 적이나 경쟁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한다(유영주, 1986). 그리고 아동은 형제·자매 관계를 통해 가족 밖에 있는 다른 아동과의 대인 관계의 기초가 되는 협동, 방어, 갈등, 경쟁, 지배 등의 원리를 학습하게 된다(김경희, 1987). Azmitia와 Hersser(1993)도 손위형제는 교사와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동생은 학습자와 추종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형제유무가 개인의 사회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형제·자매간의 역할 학습을 할 수 없는 외동아는 사회성 발달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르쳐 줄 형제가 없고, 가르칠 동생도 없는 외동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적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본다(Zajonc & Markus, 1975). 그러나 여러 연구들은 외동아가 형제아에 비해 지적 성취나 지적 역량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Falbo와 Polit(1986)은 외동아와 형제아의 성취와 지능을 비교한 결과, 외동아가 형제아에 비해 지적으로 더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중국 학자 唐久來(1994)도 외동아가 형제아보다 여러 가지 특성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같은 연령대의 형제아에 비해 외동아는 상상력, 언어 능력, 모방 능력, 능동적인 사고력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적 특성에 관해서는 상반되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자녀 가정 아

동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아는 형제간 상호작용의 결핍으로 인해 대인관계 관련 영역에서 문제를 보일 것으로 가정한다. 즉, 형제·자매간의 상호작용은 아동으로 하여금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정에서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외동아에게는 이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것이다(이명홍, 1987). 외동아의 사회성에 관한 일부 연구는 이런 가정을 지지해준다. 외동아는 형제아에 비해 비사교적이며, 신경질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며, 덜 협동적이고,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성옥, 1998; Jiao & Ji, 1986). 또한 외동아는 형제아에 비해 자율성이 낮고(김숙경, 1989), 심리적 안정성과 사회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류향자, 1999).

그러나 형제·자매가 없는 한 자녀 가정 아동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많아짐으로써 오히려 사회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Hurlock(1964)에 따르면, 외동아는 주로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므로, 행동 성숙이 빠르며, 이것이 좋은 동료 관계를 갖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동아는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 접하는 또래들에게 그 연령에 비해 더 성숙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또한 한 자녀 가정 아동은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물질적, 정신적 배려 및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 속에서 자란 다자녀 가정 아동들보다 더 협조적이고, 독자적이며, 리더십을 보이며, 적은 수의 친구로 만족해하며, 외로워하지 않고, 성숙한 행동을 빨리 모방할 수 있다(박현주, 1992; Falbo, 1979). 한국 외동아와 형제아의 또래 간 사회성을 연구한 김상희(1990)의 연구에서도 외동아는 형제아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 결여가 시간이 지

나면서 회복된다는 연구도 있다. 중국학자 唐久來(1994)의 종단연구에서, 학령 전의 아동에게는 외동아가 의존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이 나타났으나, 성장하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학교에서의 집단생활을 통해 중학교까지 외동아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우정을 공유해 가며, 형제의 부재로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학습하게 되므로, 나이가 들면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형제·자매와 함께 자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Hurlock(1964)은 한 자녀 가정 아동이 형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성이나 인간적인 면의 발달이 더딜 우려는 있으나, 형제간의 경쟁심이나 질투에 의해 성격이 비뚤어지게 될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자녀 가정 아동은 형제 중에서 자신의 위상을 유지하고 부모의 애정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므로, 의심이 많고 공격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김숙경, 1989).

형제가 없는 대신, 외동아는 부모와 전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외동아에게 부모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Falbo & Polit, 1986). 다자녀 가정 아동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의 출생으로 아동의 모-자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지만, 외동아의 경우에는 이런 변화가 없이 모-자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김숙경, 1989). 따라서 외동아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외동아의 사회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임에 틀림없다.

양육방식이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 혹은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의미하며(최경순, 1993), 부모의 아동에 대한 느

김이나 추상적 태도 또한 양육방식에 반영된다. Fishbein과 Ajzen(1975)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 방식은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 양식으로, 가족 구성원이나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 문화적 배경,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한 자녀 가정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방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외동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간주하는 학자들은 외동아 어머니의 경우 '아이가 하나밖에 없다'하여 자칫하면 지나친 애정과 과보호를 하기 쉽고, 어머니의 애정이 아동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외동아가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역할연습을 할 기회를 박탈한다고 본다. 그 결과 아동은 의존적이 되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이기적이고 절제하지 못하며, 일부 퇴행하는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송성옥, 1998).

외동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살펴보면, 외동아의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더 높은 수준의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자녀가 어머니가 자신에게 더 애정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어, 모-자녀 간에 보다 질 높은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Lewis & Kreitzberg, 1979). 그리고 외동아는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모와 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발달을 보이며 성숙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이현주, 2000). 변은수(1990)는 형제가 없는 외동아가 다자녀 가정 아동보다 부모와 더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긍정적

인 관계는 부모의 아동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하여 마침내 아동의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부모로부터 충분한 주의와 애정을 받는 외동아는 형제의 부재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 부분 보상할 가능성이 높다.

양육방식에서의 문화차이는 발달심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양육방식의 문화 차이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아시아계(특히 중국) 부모와 미국 부모의 양육방식의 비교에 집중되어 있다(Chao, 1994; Chiu, 1987; Chen & Uttal, 1988; Wang & Phinney, 1998; Wang & Ollendick, 2001).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아시아계 아동과 청소년이 미국 아동과 청소년들보다 지적, 사회적 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Stevenson, Lee, & Stigler, 1986; Sue & Okazaki, 1990; Steinberg, Mounts, Lamborn, & Dornbusch, 1991), 이를 부모의 양육방식과 연계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권위주의적 양육은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과 부적상관을 보이는 반면에(Baumrind, 1971, 1989, 1991; 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아시아계 부모는 훨씬 더 권위주의적으로 양육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동들의 학습수행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ornbusch, Ritter, Leiderman, Roberts, & Fraleigh, 1987; Steinberg, et al., 1991). 이런 차이에 관해 Chao(1994)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동을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방식이 아동의 자율성과 역량을 저해하는 반면, 유교문화권에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는 권위주의적 통제가 아동으로 향한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가 미국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적대감이나 거부와 관련되는 반면, 동양문화권의 청소년들에게는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

가 부모의 관심 및 돌봄과 관련될 수 있다(Rohner, 1980).

이런 연구들은 미국적 관점에서의 양육방식에 대한 해석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 양육 방식은 개인이 속한 문화권의 가치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Chao, 1994, 2001). 중국 문화의 바탕은 유교이다(Ho, 1994). 유교에서 강조하는 핵심 덕목 중의 하나가 효개념이다. 효개념에 따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의 없이 복종하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권위에 대한 복종과 존중이 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 한국도 기본적으로 유교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중국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 남아선호사상이 약화되고 있지만 유교 문화권에 속한 한국과 중국(특히 중국)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기대수준이 달라 차별적 양육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연구 결과는 외아들보다 외동딸에게 더 애정적인 경우도 있고(서희정, 1995), 역으로 외동딸보다 외아들에게 더 애정적인 어머니도 있다(송호경, 2004).

부모가 자발적으로 한 자녀를 갖게 된 경우와 비자발적으로 한 자녀를 갖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부모-자녀관계 또는 부모행동은 여러 면에서 다를 수 있다. 중국처럼 국가적 정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외동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국처럼 신체적인 이유로 더 낳을 수 없거나(변은수, 1990), 어머니의 사회활동을 고려해서 더 낳을 수 없는(서희정, 1995) 경우도 있다. 또한 가정과 직장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역할 긴장이나 갈등을 느끼는 경우에 자녀를 적게 낳을 수 있다(Alvarez, 1985). 이처럼 중국 어머니들이 인구제한 정책에 따라 자녀를 1명 이상 낳기 어려운 반면에, 서구나 한국의 어머니들은 다양한 이유에 근거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자녀를 적게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외동아의 사회성간의 관계를 살필 때, 외동아를 갖게 된 부모의 동기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을 비교함으로써,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아들이 사회성에서 결함을 보이는지, 다자녀 가정 아동들과 차이가 없는지, 아니면 다자녀 가정 아동들에 비해 더 나은 측면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한·중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한·중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한·중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자

한국과 중국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1~6학년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 568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자녀 국적과 성별, 학년에 따른 아동의 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비율을 보면, 중국

표 1. 연구에 참여한 한·중 한 자녀 가정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성별, 학년별 분포

학년	중 국					한 국					전체
	한 자녀 가정 아동		다자녀 가정 아동		계	한 자녀 가정 아동		다자녀 가정 아동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3	39	48	18	24	129	33	19	39	59	150	279
4-6	46	47	26	25	144	25	21	48	51	145	289
전체	85	95	44	49	273	58	40	87	110	295	568

아동의 어머니가 273명이었고 한국 아동의 어머니가 295명이었다. 중국에는 한 자녀 가정 아동이 많고 한국에는 다자녀 가정 아동이 많아, 국적에 따라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어머니 숫자가 달랐다. 중국 어머니의 경우에는 한 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가 180명, 다자녀 가정 아동이 93명이었던 반면에, 한국 어머니의 경우에는 한 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가 98명,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가 197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자녀 성별 구성을 보면, 남아가 274명, 여아가 294명이었는데, 중국 남아가 129명, 한국 남아가 145명이었고, 중국 여아가 144명, 한국 여아는 150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자녀의 국적별, 남녀별, 외동여부별 그리고 학년별 아동의 수는 전체적으로 비슷하였다.

한국의 경우 울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을 선발하였는데, 한 자녀 가정 아동의 경우 1학년에서 6학년의 학교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표집하였고, 다자녀 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각 학년 별로 2개 학급에서 표집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소주시에 소재하는 한 초등학교에서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을 표집하였는데, 한국과는 역으로 다자녀 가정 아동의 경우,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표집하였고, 한 자녀 가정 아동의 경우 각 학

년별로 2개 학급에서 표집하였다.

측정도구

어머니의 양육방식 측정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방식은 박성연과 이숙(1990)이 재구성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박성연의 선행연구(박성연, 1989)에서 선정된 43개의 문항들에 37개의 문항들이 추가·보완되어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요인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7개 요인(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합리적인 지도, 적극적인 참여, 성취, 일관성있는 규제)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척도는 총 5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늘 그렇다’까지 5점 척도 상에서 평정되었다.

이 척도에 포함된 하위 영역들을 살펴보면, 첫째, 애정 요인은 아동에게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아동 중심적이면서 아동을 존중·수용해주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한 방식이다. 둘째, 권위주의적 통제 요인은 아동의 충동이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통제나 제약과 관련된 것으로,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협박이나 벌로 강요하는 방식이다. 셋째, 과보호 요인은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가급

적 막고 의존성을 보상해 주는 행동으로서, 아동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고 뒷바라지를 하는 방식이다. 넷째, 합리적인 지도 요인은 아동을 도와 주거나 아동의 행동을 지도하는 데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 왜 안 되고 왜 용납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방식이다. 다섯째, 적극적인 참여 요인은 아동과 함께 적극적·활동적으로 행동하며, 아동과 놀아주고, 아동이 하는 일이나 문제 해결에 대해 요청하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여섯째, 성취 요인은 아동의 발달 수준에 대한 관심이나 지적·사회적 행동에 대한 지지가 높고, 그것을 격려해 주는 태도이다. 끝으로, 일관성 있는 규제 요인은 매일의 일과를 정해 놓고 있으며, 아동에게 정해 놓은 규칙을 지키고 따르게 하는데 일관성이 있어,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부모의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 어머니를 대상으로는 한국어판이 사용되었고, 중국 어머니들에게는 한국어판을 중국어로 번역한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한국어판의 중국어 번역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발달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번역된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또다른 대학원생에 의해 중국어판을 다시 한국말로 재번역하게 하였다. 한국어판과 중국어판을 한국어로 재번역한 내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내용의 의미가 동일하였다.

어머니 양육방식을 구성하는 7개 하위 영역별 Cronbach α 값을 살펴보면, 한국어머니 자료의 경우 합리적인 지도 영역이 .86, 애정 영역이 .90, 권위주의적 통제 영역이 .77, 과보호 영역이 .76, 성취 영역이 .78, 적극적인 참여 영역이 .78, 일관성 있는 규제 영역이 .6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 어머니 자료의 경우 합리적인 지도 .75, 애정 .80, 권위주의적 통제 .73, 과보호 .73, 성취 .78, 적극

적인 참여 .77, 일관성 있는 규제 .64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자료에서 일관성 있는 규제의 내적 일치도가 낮은 것은 여기에 속한 문항이 3문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사회성 측정

본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성은 어머니의 보고에 의해 측정되었다.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은 김숙경(1989)의 사회성 측정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질문지는 사회성숙도 검사(한국 행동과학연구소, 1974)와 Pease, Clark과 Crase(1979)에 의해 제작된 사회적 능력 검사지(박범실, 1987, 재인용), Jiao와 Ji(1986)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 및 김숙자(1982)의 자율성에 관한 질문지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설문지이다. 이 설문지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이다.

어머니 보고용 아동의 사회성 척도를 구성하는 4개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협동성은 남을 도와주고, 자신의 물건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놀이의 규칙이나 차례를 잘 지키는 긍정적인 행동을 말한다. 자기중심성은 자기의 흥미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부모에게 고집부리며 마음대로 행동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말한다. 자율성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이나 주어진 일을 스스로 수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끝으로 대인 적응성은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며 집단생활이나 새로운 친구와 잘 어울려 지내는 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하위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점검하기 위해 하위 영역에 속한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하위 영역에 속한 문항들 간의 상관 분석 결과, 자기중심성 척도, 자율성 척도,

표 2. 한·중 한 자녀 아동과 다자녀 아동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방식의 하위 영역별 평균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방식의 하위 영역	한 국			
	한 자녀 가정 아동		다자녀 가정 아동	
	남(n=58)	여(n=40)	남(n=87)	여(n=110)
합리적인 지도	4.10(.55)	3.91(.55)	3.99(.52)	3.95(.53)
애정	3.90(.65)	3.69(.63)	3.71(.60)	3.73(.67)
권위주의적 통제	2.68(.53)	2.56(.53)	2.61(.54)	2.67(.56)
과보호	2.69(.61)	2.56(.59)	2.42(.52)	2.47(.52)
성취	3.80(.75)	3.67(.65)	3.70(.64)	3.78(.60)
적극적인 참여	3.47(.65)	3.20(.66)	3.28(.55)	3.26(.62)
일관성있는 규제	3.62(.66)	3.44(.71)	3.55(.67)	3.56(.69)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방식의 하위 영역	중 국			
	한 자녀 가정 아동		다자녀 가정 아동	
	남(n=85)	여(n=95)	남(n=44)	여(n=49)
합리적인 지도	4.17(.52)	4.11(.49)	4.07(.63)	4.13(.54)
애정	3.77(.63)	3.80(.61)	3.58(.68)	3.67(.68)
권위주의적 통제	2.84(.51)	2.70(.61)	2.86(.63)	2.81(.60)
과보호	2.64(.57)	2.49(.66)	2.80(.55)	2.60(.69)
성취	3.53(.68)	3.39(.66)	3.69(.76)	3.52(.82)
적극적인 참여	3.70(.67)	3.65(.71)	3.40(.79)	3.33(.66)
일관성있는 규제	3.99(.68)	3.89(.69)	3.74(.77)	3.71(.81)

대인적응성 척도에서 해당 하위 영역에 속한 다른 문항들과 전혀 상관이 없거나 역상관을 보인 문항이 1개씩 발견되어 이 문항들을 삭제하고, 나머지 문항들로 사회성 하위 척도 점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아동의 사회성 척도 4개 하위 영역의 Cronbach α 값을 보면, '한국어판'의 경우, 협동성 영역이 .68, 자기중심성 영역이 .71, 자율성 영역이 .53, 대인적응성 영역이 .72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어판'의 경우 협동성 .67, 자기중심성 .67, 자율성 .66, 대인적응성 .72로 나타났다.

절차

본 조사는 2008년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실시되었다. 한국 울산시와 중국 소

주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에서 6학년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들에게 담임교사들을 통해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응답된 설문지는 담임교사를 통해 회수하였다.

결 과

한·중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의 양육방식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과 중국 어머니들이 보고한 자녀 양육방식의 하위영역 평균을 표 2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적(한국 대 중국), 외동 여부(한 자녀 가정 아동 대 다자녀 가정 아동) 그리고 성별에 따른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 양육방식 차이를

표 3. 국적·외동·성별 여부에 따른 어머니 양육방식의 하위영역별 변량분석 결과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 방식의 하위 영역	F값						
	국적	외동	성별	국적*외동	국적*성별	외동*성별	국적*외동*성별
합리적인 지도	7.73**	.67	1.37	.00	1.41	1.84	.03
애정	.77	4.36*	.04	.60	1.91	1.50	.56
권위주의적 통제	11.33**	.73	1.66	.15	.36	1.76	.19
과보호	3.58	.17	4.28*	9.40**	1.57	.53	1.19
성취	11.25**	1.51	2.22	1.30	1.15	.44	1.03
적극적인 참여	13.5***	9.85**	2.99	4.29*	.48	.97	1.27
일관성있는 규제	20.71***	2.28	1.50	3.75	.02	1.11	.22

* $p < .05$. ** $p < .01$. *** $p < .001$

검증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 양육방식 7개 하위영역들을 종속변인으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 7개 척도 점수의 오차변량의 동질성을 검사한 결과(Levene's test) 6개 하위 영역이 서로 동질적임이 확인되었다.

다변량분석 결과, 국적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Wilks' Lambda=.850, $F(7, 554)=13.947$, $p < .001$), 외동여부의 주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Wilks' Lambda=.967, $F(7, 554)=2.677$, $p < .01$). 그리고 국적과 외동여부의 상호작용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961, $F(7, 554)=3.178$, $p < .01$). 반면에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Wilks' Lambda=.984, $F(7, 554)=1.301$, $p > .05$), 성별은 국적과 외동여부와 어떤 상호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국적(한국 대 중국)과 외동여부(한 자녀 가정 아동 대 다자녀 가정 아동)에 따른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 양육방식의 세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일변량분석 결과를 실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하위 영역을 보면, 어머니의 양육방식 중 합리적인 지도, 권위주의적 통제, 성취, 적극

적인 참여, 일관성있는 규제에서 국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 어머니는 한국 어머니에 비해 아동을 더 합리적으로 대하고($F(1, 568)=7.73$, $p < .01$), 아동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F(1, 568)=13.50$, $p < .001$), 일관성있는 규제($F(1, 568)=20.71$, $p < .001$)를 많이 하는 동시에 아동을 더 권위적으로 통제하며($F(1, 568)=11.33$, $p < .01$), 아동에게 성취를 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568)=11.25$, $p < .01$).

외동여부에 따라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 양육방식을 보면, 어머니들은 다자녀 가정 아동보다 한 자녀 가정 아동을 더 애정적으로 대하며($F(1, 568)=4.36$, $p < .05$), 놀이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568)=9.85$, $p < .01$).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하위영역 중 과보호 영역에서는 국적과 외동여부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F(1, 568)=9.40$, $p < .01$), 이는 한국 어머니의 경우 다자녀 가정 아동보다 한 자녀 가정 아동을 더 과보호한다고 보고한 반면($t(293)=2.82$, $p < .01$), 중국 어머니는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을 비슷하게 과보호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참여에서도 국적과 외동여부의

표 4. 한·중 한 자녀 아동과 다자녀 아동의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 하위 영역별 평균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 하위 영역	한 국			
	한 자녀 가정 아동		다자녀 가정 아동	
	남(n=58)	여(n=40)	남(n=87)	여(n=110)
자기중심성	2.35(.68)	2.18(.62)	2.28(.70)	2.39(.70)
자율성	3.61(.60)	3.65(.44)	3.69(.45)	3.75(.46)
대인적응성	3.56(.71)	3.55(.64)	3.48(.63)	3.46(.69)
협동성	3.76(.48)	3.85(.39)	3.80(.43)	3.85(.46)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 하위 영역	중 국			
	한 자녀 가정 아동		다자녀 가정 아동	
	남(n=85)	여(n=95)	남(n=44)	여(n=49)
자기중심성	2.72(.67)	2.56(.66)	2.73(.65)	2.83(.86)
자율성	3.66(.52)	3.83(.48)	3.67(.59)	3.73(.62)
대인적응성	3.60(.61)	3.62(.65)	3.54(.71)	3.57(.74)
협동성	3.91(.46)	3.97(.41)	3.81(.69)	3.89(.51)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F(1, 568)=4.29, p<.05$), 이는 중국 어머니의 경우 다자녀 가정 아동보다 한 자녀 가정 아동의 놀이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t(271)=3.43, p<.01$), 한국 어머니의 경우에는 한 자녀 아동과 다자녀 아동을 비슷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한·중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

한·중 아동들의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 하위영역별 평균을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적, 외동여부 및 성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차이 검증을 위해,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의 사회성 4개 하위영역들을 종속변인으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 4개 척도 점수의 오차변량의 동질성을 검사한 결과(Levene's test) 3개 하위 영역이 서로

동질적임이 확인되었다.

아동의 사회성의 하위 척도 점수들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국적, 외동여부 및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한 다변량분석 결과, 국적의 주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901, $F(4, 557)=15.268, p<.001$). 다변량 분석결과 외동여부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Wilks' Lambda=.988, $F(4, 557)=1.636, p>.05$). 그리고 성별의 주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으나(Wilks' Lambda=.991, $F(4, 557)=1.636, p>.05$), 후속의 단일변량 분석 결과(표 5)에서는 자기중심성에서 외동여부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1, 568)=4.434, p<.05$).

표 5를 보면, 국적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 사회성 평정에서, 중국 어머니들이 한국 어머니에 비해 자녀들을 더 자기중심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F(1, 568)=43.464, p<.001$), 또한 더 협동적으로 평가하였다($F(1, 568)=3.885, p<.05$). 외동여부에 따른 어

표 5. 국적·외동·성별 여부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하위 영역별 변량분석 결과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 하위 영역	F값						
	국적	외동	성별	국적*외동	국적*성별	외동*성별	국적*외동*성별
자기중심성	43.46***	2.79	.22	.29	.00	4.43*	.00
자율성	1.00	.25	3.36	2.13	.42	.20	.57
대인적응성	1.49	1.35	.01	.08	.16	.00	.00
협동성	3.89*	.76	2.60	1.66	.00	.02	.09

* $p < .05$. ** $p < .01$. *** $p < .001$

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을 보면, 한 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과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중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사회성간의 관계

한중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양육방식과 사회성 하위영역들 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적과 외동여부별로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한 자녀 가정 아동과 중국의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전반적 상관양상이 다르고,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

먼저 한국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사회성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다. 한국 한 자녀 가정 아동의 경우 어머니 양육방식의 영역들이 주로 아동의 자율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애정적으로 대할수록, 과보호를 덜 할수록,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할수록, 일관성있는 규제를 할수록 아동은 더 자율적으로 평정되었다. 어머니의 일관성있는 규제는 아동의

대인적응성과 협동성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통제를 가하고 과보호할수록 아동은 더 자기중심적으로 평정되었다.

한국의 한 자녀 가정 아동이 어머니 양육의 일부 영역에서만 상관을 보인 결과와 달리 중국의 한 자녀 가정 아동은 어머니 양육의 모든 하위 영역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애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그리고 일관성있는 규제를 할수록, 아동의 자율성이 더 높고, 대인적응성도 더 높고, 협동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할수록, 과보호할수록, 아동의 자율성과 협동성은 더 낮고, 자기중심성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는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부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한국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제한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 반면, 다자녀 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여러 사회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다자녀 가정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아동을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애정적으로 대할수록, 성취를 격려할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그리고 일관성있는 규제를 할수록, 아동은 더 자율적이며, 대인적응성이 높고, 더 협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한·중 한 자녀 아동과 다자녀 아동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사회성간의 상관관계

	사회성 하위영역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 참여	일관성있는 규제	
한 국	한 자녀 가정 아동 (n=98)	자기중심성	-.15	-.11	.29*	.24*	-.02	-.09	-.11
	자율성	.35**	.30**	-.19	-.23*	.14	.23*	.30**	
	대인적응성	.26*	.14	.14	-.01	.11	.08	.23*	
	협동성	.20	.18	-.16	-.07	.08	.14	.21*	
중 국	다자녀 가정 아동 (n=197)	자기중심성	-.21**	-.18*	.26**	.38**	-.02	-.15*	-.12
	자율성	.36**	.37**	-.16**	-.08	.19**	.30**	.25**	
	대인적응성	.29**	.24**	-.02	-.02	.18*	.19*	.25**	
	협동성	.39**	.30**	-.13	-.09	.30**	.38**	.24**	
한 국	한 자녀 가정 아동 (n=180)	자기중심성	-.09	-.18	.36**	.28**	.02	-.08	-.11
	자율성	.33**	.40**	-.31**	-.18*	.09	.28**	.21**	
	대인적응성	.29**	.43**	-.09	-.10	.28**	.36**	.26**	
	협동성	.40**	.50**	-.26**	-.31**	.21**	.31**	.17*	
중 국	다자녀 가정 아동 (n=93)	자기중심성	.02	-.07	.31**	.22*	.26**	-.07	-.02
	자율성	.33*	.36**	-.13	.09	.14	.31**	.35**	
	대인적응성	.25*	.30**	-.06	.08	.32**	.35*	.40**	
	협동성	.53**	.43**	.14	-.01	.28**	.41**	.47**	

* $p < .05$. ** $p < .01$.

반면에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할수록, 과보호할수록, 한국 다자녀 가정 아동들은 더 자기중심적이고 자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사회성간의 관계를 보면, 다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가 아동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일관성있는 규제를 할수록 다자녀 가정 아동들은 더 자율적이고, 대인적응성이 높고, 협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할수록, 과보호할수록, 그리고 성취를 격려할수록 다자녀 가정 아동은 더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그리고 애정적으로 대할수록 아동은 더 자율적이고 더 협동적이고 대인적응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어머니의 한 자녀 아동을 갖는 동기

부모가 자발적으로 한 자녀를 갖게 된 경우와 비자발적으로 한 자녀를 갖게 되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책에 따라 한 자녀 가정을 갖는 중국의 경우와 그렇지 않는 한국의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어머니가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동기와 양육방식간의 관련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표 7에는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과 중국 어머니가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게 된 주요 동기의 빈도가 제시되어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어머니가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동기는 국

표 7. 한·중 어머니의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주요 동기 유형별 비율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동기	중국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어머니 (n=180)	한국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어머니 (n=98)
	빈도 (%)	빈도 (%)
경제적인 이유	74 (41.1)	35 (35.7)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106 (58.9)	29 (29.6)
국가정책의 강제적 규정	113 (62.8)	0 (.0)
어머니의 직장 때문에	29 (16.1)	29 (29.6)
신체적인 이유	11 (6.1)	32 (32.7)
인구문제 때문에	58 (32.2)	0 (.0)

가정책의 강제적 규정(62.8%), 키우기가 힘들 (58.9%), 경제적인 이유(41.1%), 인구문제(3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 어머니가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동기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주로 경제적인 이유(35.7%), 신체적인 이유(32.7%), 키우기가 힘들(29.6%)과 어머니의 직장(29.6%) 순으로 나타났다.

한·중 어머니가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동기를 비교해 보면, 중국은 국가정책에 따른 것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탓이라면, 한국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어머니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한국과 중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 아동과 비교하여 한 자녀 가정 아동을 다르게 양육하는지, 그에 따라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한·중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 양육방식의 전체적인 차이를 비교한 결과, 국적과 외동 여부, 그리고 국적과 외동 여부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어머니는 한국 어머니에 비해 자녀를 더 합리적으로 대하며, 아동의 놀이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더 일관성있는 규제를 하며, 성취를 덜 요구하는 동시에, 아동을 더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하며, 더 과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어머니에 비해 중국 어머니가 자녀를 더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하되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일관성있게 규제를 가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중국계 어머니들이 유럽계 미국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를 보다 권위적으로 대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Chao, 1994; Chiu, 1987; Donbusch et al., 1987; Lin & Fu, 1990; Steinberg et al., 1991), 중국 어머니들의 권위주의적 통제는 자녀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Chao, 1994). 반면에 같은 유교문화권 전통을 갖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중국 어머니들에 비해 아동을 덜 권위적으로 대하고, 규제를 덜 하는 것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훨씬 더 서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자녀 양육방식 보고에서 외동여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기대와 일치되게 한-중 어머니들은 다자녀 가정 아동보다 한 자녀 가정 아동을 더 애정적으로 대하고, 놀이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한 자녀 가정 아동을 더 애정적으로 대하고 (김진남, 1987; 김숙경, 1989; 서희정, 1995), 한 자녀 가정 아동 부모의 대부분이 애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들이 자녀에게 정서적 개입을 많이 한다는 선행 연구(이성진, 이기우, 1986)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어머니 모두 다자녀 아동보다 한 자녀 아동을 더 애정적으로 대했지만, 중국 어머니에 비해 한국 어머니들은 다자녀 가정 아동에 비해 한 자녀 가정 아동을 더 과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녀수가 양육방식 차원과 별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선행 연구와는(김진남, 1987; 박현주, 1992)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중국 어머니 역시 다자녀 가정 아동에 비해 한 자녀 가정 아동을 더 애정적으로 대했지만, 한국 어머니에 비해 한 자녀 가정 아동을 더 과보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어머니들은 한국 어머니에 비해 다자녀 아동보다 한 자녀 아동의 놀이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한국의 한 자녀 아동 어머니들이 외동아를 지나치게 보호하면서 사랑한다면, 중국의 한 자녀 아동 어머니들은 한 자녀 아동을 사랑하되 과보호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많은 선행 연구들의 주요 주제이다(김덕희, 2005; 김병태, 1997; 김숙경, 1989; 도미향, 윤지영, 2004; 류향자, 1999;

박현주, 1992; 서희정, 1995; 송성욱, 1998; 조성호, 1998; Falbo & Polit, 1987; Jiao & Ji, 1986). 본 연구에서 중국 어머니는 한국 어머니에 비해 자녀를 더 자기중심적이면서도 더 협동적이라고 평가하여 국적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어머니와 한국 어머니가 보고한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은 전체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한 자녀 가정 아동이 비사회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의지가 박약하며, 덜 협동적이고, 동료의 신뢰를 잘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선행 결과(송성욱, 1998; Jiao & Ji, 1986)나, 심리적 안정성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류향자, 1999), 그리고 한 자녀 가정 아동은 부모의 지나친 애정과 과보호로 인해 아동 스스로 능동적인 역할을 학습할 기회가 박탈되어 의존성이나 이기심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송성욱, 1998)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한 자녀 가정 아동이 다자녀 가정 아동에 비해 사회적 역량이나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아동의 사회성의 하위 영역들이 한국과 중국의 어머니 양육방식의 하위 유형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기대하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어머니의 양육방식 중 합리적 지도, 애정,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있는 규제는 아동의 사회성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는 아동의 사회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권위주의적이고 과보호할수록 자율성이 낮아지고, 대인적응성이 낮아지며, 협동성이 낮아지는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가 자율적인 양육방식을 지닐수록 아동의 사회적 활동성이

높고(김덕희, 2005), 부모 양육방식이 애정-자율-성취-사회성 지향적일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높은 경향을 띠는 연구(조성호, 1998)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한 자녀 가정 아동의 경우 어머니 양육방식 영역들이 주로 아동의 자율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애정적으로 대할수록, 과보호를 덜 할수록,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할수록, 일관성있는 규제를 할수록 아동은 더 자율적으로 평정되었다. 어머니의 일관성있는 규제는 아동의 대인적응성과 협동성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통제를 가하고 과보호할수록 아동은 더 자기중심적으로 평정되었다.

한국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제한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 반면, 다자녀 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사회성의 여러 영역들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가 한 자녀 가정 아동을 애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한 자녀 가정 아동의 대인적응성과 협동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 아동에게서는 한국 어머니들이 애정적으로 대할수록 다자녀 가정 아동의 자기중심성이 낮고, 자율성이 높고, 대인적응성과 협동성도 높아,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과 자녀의 사회성이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한국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가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거나 한 자녀 가정 아동에게서 그 관계가 미약한 것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 간의 상관보다는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 간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진 것에 비

해, 중국의 경우에는 다자녀 가정 아동에 비해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어머니 양육방식간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졌다. 한국과 중국에서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사회성간의 관계 양상이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에게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어머니들이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이유를 비교해 보면, 중국 한 자녀 어머니가 한 명의 자녀를 갖는 동기는 주로 '국가정책의 강제적 규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동기를 제일 많이 보고하였다(62.8%). 반면에 한국 한 자녀 어머니는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동기가 비교적 다양하여, 주로 어머니의 경제적, 신체적, 직업적 조건 때문에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아마도 국가정책에 의해 한 자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중국 어머니들은 아동에게 보다 엄하게 힘있는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한 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와 중국 한 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의 양육 방식을 비교해 보면, 중국 한 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는 한국 한 자녀 가정 아동 어머니에 비해 더 권위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놀이와 활동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 자녀 가정 아동을 갖는 동기와 양육방식간의 관련성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면서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의 사회성 평정 하위 4개 영역(자기중심성, 자율성, 대인적응성, 협동성)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 α 값이 .70 내외로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사용된 문항들에 대한 보완적 작업을 통해 아동의 사회성을 구성하는 차원들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하위 영역

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어머니 양육방식과 아동의 사회성을 재는 척도는 한국에서 사용된 척도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탓에 문화적 동등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자녀 양육 방식은 개인이 속한 문화의 가치 배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Chao, 1994, 2001), 문화간 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사용된 척도의 문화적 동등성을 고려한 척도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 양육방식과 자녀의 사회성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런데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 발달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唐久來, 1994).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또래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반면, 그 이전 시기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인해,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유아기, 초등학교, 중학교 등 연구대상자를 확장하는 연구를 통해 발달적 비교를 한다면, 더 유용한 자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의 사회성 평정은 다자녀 가정 아동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한 자녀 가정 아동이 보이는 고유한 사회성을 표집하지 못한 제한이 있다. 앞으로 한 자녀 가정 아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라면 한 자녀 가정 아동에 초점을 맞춘 문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방식과 아동의 사회성을 각각 어머니로부터 얻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아동

이 보고한 사회성 자료도 수집하여, 어머니의 보고에 의한 자료와 아동의 보고에 의한 자료의 유용성을 살피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딸보다 아들을 더 과보호하는 것 이외에는 아동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들이 딸보다 아들을 더 과보호한다는 결과는 아들에게 더 애정적인 양육방식을 보였다는 송호경(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 중에는 딸에게 더 애정적인 양육방식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서희정, 1995). 자녀의 성에 따른 어머니 양육방식에 관한 논의도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 (1987).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덕희 (2005). 외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태 (1997).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과 자아 존중감에 관한 비교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희 (1990). 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인구학적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경 (1989). 외동아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자 (1982). 어머니의 간섭이 자녀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남 (1987). 외동아와 두자녀 이상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미향, 윤지영 (2004). 외동이와 형제아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발달. *아동학회지*, 25(3), 75-85.
- 류향자 (1999). 외동이와 형제아의 성격 특성과 학교적응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범실 (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한가정학회지*, 27(4), 151-165.
- 박성연 (1989).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 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51-165.
- 박성연, 이숙 (1990). 어머니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현주 (1992). 외동이와 형제아의 성격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은수 (1990). 외동이의 성격발달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희정 (1995).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옥 (1998).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성발달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호경 (2004). 외동이와 다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 (1986).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이명홍 (1987). 가족치료. *사회사업*, 11, 6-36.
- 이성진, 이기우 (1986). 한 자녀 가정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한가족계획협회*, 1-55.
- 이현주 (2000). 외동아와 형제아의 언어능력과 사회성간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호 (1998). 외동이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국통계청 (2008). 인구조사. <http://www.stats.gov.cn/>
- 최경순 (1993). 아버지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36, 269-309.
- 통계청 (2008). 주요출산력지표. <http://www.nso.go.kr>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74). 사회성숙도 검사.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한국어사전편찬회 (1976). *한국어대사전*. 서울: 현문사.
- 唐久來(1994). 獨生子女認知能力與社會活動能力研究. *中華兒童學會志*, 32(6), 121-129.
- Alvarez, W. F. (1985). The meaning of maternal employment for mothers and their perceptions of their three-year-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2), 350-360.
- Azmitia, M., & Hesser, J. (1993). Why sibling are important agents of cognitive development: A comparison of sibling and peers. *Child Development*, 64, 430-444.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1(1, part2), 1-103.
- Baumrind, D. (1989). Rearing competent children. In W. Damon (Ed.), *Child Development Today and Tomorrow* (pp. 349-378). San Francisco: Jossey-Bass,
- Baumrind, D. (1991).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in J. Brtooks-Gunn, R. Lerner and A. C. Petersen(Eds), *The Encyclopedia of Adolescence* (pp. 746-758).

- New York: Garland.
- Chao, R.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 Chao, R. (2001). Extending research on the consequences of parenting style for Chinese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s. *Child Development, 72*, 1832-1843.
- Chen, C., & Uttal, D. (1988). Cultural values, parents' beliefs, and children's achiev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uman Development, 31*, 351-358.
- Chiu, L. (1987). Child-rearing attitudes of Chinese, Chinese-American, and Anglo-American mo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2*, 409-419.
- Dornbusch, S., Ritter, P., Leiderman, P. H., Roberts, D., & Fraleigh, M. (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244-1257.
- Falbo, T. (1979). Only children, stereotype, and research. In M. Lewis and Loenard, (Eds.), *The child its family* (pp. 143-168). N.Y.: Plenum.
- Falbo, T., & Polit, D. F. (1986). A quantitative review of the only-child literature: Research evidence and theory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0*, 176-189.
- Falbo, T., & Polit, D. F. (1987). A only child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09-325.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Ho, D. (1994). Cognitive socialization in Confucian heritage cultures. In P. Greenfield & R. Coc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pp. 285-313). Hillsdale, NJ: LEM.
- Hurlock, K. B. (1964), *Child Development(4th ed)*. N.Y.: McGraw-Hill.
- Jiao, S., & Ji, G. (1986). Comparative study of behavioral qualities of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 357-360.
-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ewis, M., & Kreitzberg, V. S. (1979). Effects of Birth Order and Spacing on Mother-Infant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17-625.
- Lin, C., & Fu, V. (1990). A comparison of child-rearing practices among Chinese, immigrant Chinese, and Caucasian-American parents. *Child Development, 61*, 429-433.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ease, D. S., Clark, G., & Crase, S. J. (1979).

- Iowa social competency scales: school-age and preschool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 Rohner, R. P. (1980). Worldwide test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An overview. *Behavior Science Research, 15*(1), 1-22.
- Steinberg, L., Mounts, N., Lamborn, S., & Dornbusch, S. (1991). Authorita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cross various ecological nich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 19-36.
- Stevenson, H., Lee, S., & Stigler, J. (1986). Mathematics achievement of Chinese, Japanese, and American children. *Science, 231*, 693-699.
- Sue, S., & Okazaki, S. (1990). Asian-American educational achievements: a phenomenon in search of an explanation. *American Psychologist, 45*, 913-920.
- Wang, Y., & Ollendick, T. H. (2001). A cross-cultural and developmental analysis of self-esteem in Chinese and Western childre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3), 253-271.
- Wang, C. C., & Phinney, J. S. (1998). Differences in child rearing attitudes between immigrant Chinese mothers and Anglo-American mothers. *Early Development and Parenting, 7*, 181-189.
- Zajonc, R. B., & Markus, G. B. (1975). Birth order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82*, 74-88.

1차 원고 접수: 2009. 07. 13.

수정 원고 접수: 2009. 08. 09.

최종 게재 결정: 2009. 08. 10.

The Relations of Only Child's and Sibling Children's Sociability with Maternal Behavior in Korea and China

Anli Xu

Young-sook C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273 Chinese mothers and 295 Korean mothers reported their maternal behavior and their only child's or sibling children's sociability. Compared maternal behavior between Korea and China, Chinese mothers showed more reasonable guidance, more active involvement, and more consistent regulation as well more controlling with power and demanding less achievement toward their child. Mothers showed more affect and more active involvement to the only child than to the sibling children irrespective of nationality. Korean mothers showed more overprotection to only child than to sibling children, but Chinese mothers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sociability rating, Chinese mother reported their children as more egocentric but cooperative than Korean mother did. The relational patterns of children's sociability with maternal behavior appeared somewhat different in Korean data and Chinese data. It was found that main reasons for having only child was national policy in Chinese mothers but was personal in Korean mothers.

Keywords: only child, sibling children, sociability, maternal behavior, Korea, China